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  
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32호

서기 2005년 6월 29일  
(음력 5월 23일) 수요일

# 29

법공양 페이지



그림 · 최주현

## 여러분의 운명은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 한마음은 있나요?

**문** 스님 법문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반아심경에도 그렇고 금강경에도 그렇고 모두 '없다' 라고 설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마음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답** 항상 얘기하지만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주 삼라대천세계, 우리 사바세계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그릇에 담겨서 흘러나오면, 여러분이 아파서 '아픈 것도 당신밖에 낫게 해 줄 수 없어.' 하고 내면에 관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약사가 생기고 또 거기서 관세음의 생기고 지장이 생기고 질성이 생기고 용신이 생기고 지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에 일체 만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스럽게 들고내고 내고 음해 주시기 때문에 한 그릇의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렷 뿐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방 안에 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다 켜고 끄고 그러는 거지 누가 만들어 줘니까? 또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말을 하는 것을 밝다고 하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정되어 있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하는 그 양편을 다 그냥 내려 놓으세요. 내가 똑마르면 그냥 물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자고 싶다 할 땐 그냥 잘 때 되면 자는 거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야겠다 하면 뛰는 거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면 쉬는 거고,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한 실상이며 법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유를 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있다 없음을 왜 붙입니다? 가족이나 살아가다 보면 귀찮은 일이 너무도 많은데 있다 없음을 왜 붙입니다.

거와 같이, 광력도 똑같고 자력도 똑같고 통신력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내가 마음을 먹는 데에 따라서 상대방도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자꾸자꾸 거기 가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이 전구는 제각각인데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가스통이 하나인데 전부 쓰는 가스는 다 그 한 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통에서만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은 한 가정을 정밀하지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선 화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살님이 자기 남편이 군인인데 별이 셋이나 패서 아주 우물대고 살 사람인데도 결혼합니다. 근데 하도 남편이 들어오면 본 체를 얹고 그렇게 다니니까 서로 떨어지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를 은근히 배신해서 그런 줄 알고 만날 싸웠습니다. 원이 터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가정일이 아주 파괴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걸 왔습니다. 그래서 관하는 법을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전자가 안 하던 행동을 하려면 애깁니다.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인이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여보, 피곤해서 어떡해요?"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 주니까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게 되고 시간만 나면 남편도 자꾸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보,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하고 찾으면 그냥 그 말과 그 생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서로 서로 통신이 잘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모두의 마음에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든 부드럽게 말해 주고요. 그럼 됩니다.

### 삼재에 대해서

**문** 제가 불교의 배움이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가 보면 삼재가 어떻다니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는데 삼재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건지, 또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면 삼재가 있는 동안에 불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전자에서부터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삼재란이 있고, 무슨 그런 것이 많이 붙습니다. 어느 말은 어떻게 어느 해는 어떻게 뭐 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삼재란이라고 무슨 새 달에 어떻게 훗달에 어떻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사 가는데 무슨 못

을 잘못 밟으면 안 되고, 동쪽은 언짢고 서쪽이 좋고... 이런 거를 몽땅! 놔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권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와, 즉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에 매달려서 그렇게 끄달려서야 되겠습니까? 삼재에 끄달리고 무슨 뭐 어디를 가면 손이 있느냐? 무슨 손이 있는 자?... 나는 이날까지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어서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오히려 받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슨 요새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이 있으면 이렇게, 무슨 죄업이 있어서 이렇게, 영계에서 이렇게 해서 오간지육이 있고, 화랑지육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다 그냥 놔 버리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금강경도 잘 보시고 화엄경도 잘 보십시오. 화엄경에도 있고 금강경에도 있고, 금강경이 축소된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모든 것을 놔 버리고,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계가 말입니다. 석 달 열흘을 산에 가서 공

장수 노인네 한 사람이 딱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떡을 하나 사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무학 대사가 대답해 줄 수 있지 나는 대답해 줄 수 없소."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는 반면에 그 떡 장수 할 머니는 없어져 버렸어요. "아하! 바로 무학 대사로구나." 이라고고선 생각을 했습니다. 무학 대사가 화해서 그 할머니로 들어가서 그 할머니가 언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무학 대사를 찾아서 가니까 무학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옥가옥' 아닌니까? 그러니 청와대 그 안에 집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색경이 깨진 것은 외르르 깨졌으니 소리가 왈창 나서 모든 백성이 그 소리가 왈창왈창 나게 우리러 얘기해 줄 것이다. 또 꽃이 폼다 외르르 진 것은 바로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었으니 바로 나라의 곡물을 먹어 줄 것이다. 그 허수아비 맨 것을 바로 모든 백성이 쳐다볼 것이다. 우리러 쳐다볼 것이다 이겁니다.

##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이 부처님 법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

미를 울리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되던 날 꿈을 꾸니까 자기 밤 해 놓은 데에 구렁이가 서서서러 없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서 그 걸 보니까 머리카락이 서서서러 있거든요. 할 수 없이 머리를 씩 그냥 찡호지르다 바르고 석 달 열흘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꿈을 꾸었거든요.

아, 쳐다보니깐 그냥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고 날아가고 또 내리다보니까 하얗게 눈이 왔는데 꽃이 활짝 피었던 게 그냥 외르르 꽃이 쳐서 떨어지거든요. 또 들어와서 안을 보니까 변경 있던 것이 외르르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하도 놀라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허수아비 목을 턱 걸어서 대롱대롱하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꿈을 만악에 여러분이 꾸었다면, 석 달 열흘을 머털 싸매고 그렇게 했는데 금세 그렇게 꿈을 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우르르 깨지고 허수아비가 달려 있고 그러면 아마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떡 그릇에도 얼드러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남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래서 가다가 가다가 해몽을 하려고 찾아가는데 아, 떡

이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꿈 해석을 해 주면서 아주 뉘박꾼 거죠. 그냥, 그 무학 대사의 능력도 알아볼만 하죠? 그러니 우리의 뉘박꾼은 그 마음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깨치지 못했으니깐 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유 때문에 고만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이성계가 인간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죽는 꿈을 꿔든지 살 꿈을 꿔든지 피를 흘리는 꿈을 꿔든지, 어떠한 꿈을 꿔든지 좋게만 생각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타당하게, 자기 앞에 있던 것이 아주 좋게, 이것이 해결 나려고 이런 꿈이 꾸어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든지,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꿈을 꾀다. 또 승진을 하려고 이런 꿈을 꾀다. 하여튼 어떤 거든지 가서 좋게만 생각하시어지, 만악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룬이 붙으면,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쁜 것이 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팔자 운명은 어디에 누가 갖다 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이죠.

전 삼재는 모르거든요. 전 모든 걸 몰라요. 모르

30면으로 계속

### 팔자 운명을 어디서 누가 갖다 줘니까?

### 여러분의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나에 생각을 하면 있는 것이 되고 또 그게 떨어지면 함이 없이 하니까, 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더냐?" 하고 물으니까 뉘통이 있는 것을 차고 빙그르르 돌아서 어느 스님이 나가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하는 말, 움죽거리는 동작, 생각이 항상 밝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악에 불이 항상 밝아 있다면 꺼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이고 꺼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밝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화신이라는 거죠. 바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자기발전소와 같아서 여러분이 불을 꺼려면 꺼고 말려면 말고, 그거뿐입니다. 꺼진다는 꺼진다는 언어가 붙지 않는 것이죠. 켜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다. 단 베가 켜고 끄고 그

###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문** 스님, 불교에서는 사실 가족이라든가 부부의 인연 등의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불행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부가 인연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가족의 인연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나요?

**답**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불교라는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니만큼 한 가정이 살아갈 때에 만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망했어. 저 사람이 조말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 하고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화목하질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내가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다면 어느 땐가 작업이 순조롭게 될 때 그 가정은 밝아지고 꺼지는 것도 아니다. 단 베가 켜고 끄고 그

# 어떤 것에도 꼬달리지 말고 몽땅 놔버리세요!

29면에서 계속

는 게 너무 많아서 편리하죠. 여러분은 모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나같이 바보처럼, 길을 걸어도 바보 같아서 꽃을 보고도 상국이 웃고 그저 서로 주고받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 몽땅 놓으려면

**문** 스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몽땅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몽땅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아니, 만날 하는 말을 글썽 되잖아 되잖아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누가 잡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마음을 내기 이전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낼 때에 아예 그 불성애다가 그냥 맡겨 버렸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은 생명의 불성으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본래자성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겨 버려요.

우리가 들고 내는 것도 거저서 하는 거지 현재의식에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자기는 시자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종일 뿐이죠. 그런데 아니, 당신 주인이 당신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지, 당신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 사는 거를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몽땅 놓는 게 되죠. 하나 둘 언제 그걸 세어서 거기 놓고 간다고 이겁니까?

모든 것은 본래 자성, 불입니다. '불' 하는 건 생명입니다. '본래'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부처를, 예를 들어서 천체를 말하고 불은 드는 걸 말합니다. 켜는 걸.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삼위일체가, 천체가, '삼위일체' 하면 육식까지도 거기 포함합니다. 이 모든 내면에 들은 의식까지도, 그래서 한마음이요 그런 겁니다.

외부의 모든 것들도, 전력도, 이거 끌어 쓰는 것도 모든 게 있어야, 지수화풍의 뜻이 있어야만 전기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친절하게 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종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나왔고 지수화풍으로 문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지금 이렇게 모두, 과학을 존재하게 하고 전력을 존재하게 하고 위성을 존재하게 하고 전파를 존재하게 하고 컴퓨터니 뭐니 다 그게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두가, 그 재료로 인해서 모두가 연구를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업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천체물리학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죠. 근본이 없다면, 그 근본이 없다면 지수화풍이 없고 지수화풍이 없다면 그 근거지를 두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체를 이끌고 가는, 오로지 보배 자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데 같이 내면과 외부가 같이 돌아가니까, 아니 같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고 말씀

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자기가 자기한테 놓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닌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 모든 것을 믿고 놔야 '놓는 놈은 누구고 맡겨서 받는 놈은 누구냐?' 하고 비로소 진정한 금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알아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과 후생이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부와 자가들이 아님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는 뭐 맡길 것도 없고 안 맡길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다 아시더라도 작업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거를 다 아시기만 하고 실천을 할 수 없다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다 있는데 실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미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뭐가 저게 뭐가 하고 사단을 붙여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

## 자기 인생은 생명의 불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본래자성불 자기한테 그냥 다 맡겨 버리세요!

할 거 없죠. 아니, 지구가 뭐 돌아간다고 말하고 돌아갑니까? 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나가고 들어옵니까? 자기가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생각하고 고정된, 그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고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죠. 믿지 못하면 그렇게 바꿔서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바꿔서 맡길 수가 없거든요. 믿으니까 맡겨 놓을 수 있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 맡기는 자와 맡는 자

**문**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맡기는 자는 누구고 맡는 자는 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맡기는 자도 자기이고 맡는 그 자체도 내가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린지요? 그렇다면 맡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그렇죠. 자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론으로 하면 그런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론

가? 다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또 실천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이 다 한군데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자기 참(眞)을 한번 발견해라 이거죠. 그럼으로써 무의 세계의 갑잡이가 되는 거죠, 그게. 참자기가 무의 세계의 갑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그렇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론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게 오히려 딱 막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데도 여러분이 눈이 못 보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만 보지 마시고 형상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데에 부처님은 항상 계신데도 여러분의 올바른 눈이 없어서 못 보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러 줘도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일러줘도 모른다면 어찌합니까? 외려 부처님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어도 한 번 더 두드리 보고 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알아도 한 번 더 두드리고 가고 또는 아무리 튼튼해도 한 번 더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그 맛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교역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 영산범음집

한글에설편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원복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범음범매집 테이프 증정)

영산범음집 인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매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만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스님이 만든 **수용케일사**

##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 이 즈**  
●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 내비 90 × 외관외 110  
● 핸드가방: 가로 255 × 세로 210 × 내비 70

● 제조원: 국내(한국산)

- 특 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호트러짐 방지(오우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울투, 佛堂 고급지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썩찍이 부착), 명찰 부착 가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 수의금은 사찰 권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여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여가시 100% 반값 가능합니다.
- 우발계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임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유니브레드 dbx AKG MACKIE crown

www.1544d1d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 의: 050-5244-0108

## 사찰 (금) 안내

서울시내 강변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교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1천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686-0779**